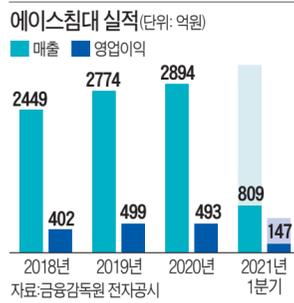


# 에이스침대 '반백년 장수대리점' 많은 비결은

경기 고양시 덕이동 에이스스퀘어 일산점은 덕이동 가구거리에서 보기 드문 30대 초반 '젊은 사장님'이 매장을 이끌고 있다. 이 매장의 양총원 대표는 18년 동안 에이스침대 매장을 운영해온 아버지 양창환 씨의 뒤를 이어 지난 5월부터 경영에 나섰다. 양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매장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어깨너머로 배운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를 이어 에이스침대 에이스스퀘어 일산점을 경영하고 있는 양창환(왼쪽), 양총원 부자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경진 기자



올해 창립 58주년을 맞이한 에이스침대는 반백년이 넘는 기업 역사만큼이나 '장수대리점'을 여럿 거느리고 있다. 46년째 한자리를 지킨 전주리우점을 비롯해 군산점(36년) 대전용전점(31년) 등이다. 대를 이어 에이스침대 간판을 내걸고 있는 곳들이다. 대리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에이스침대도 다양한 상생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대리점 운영 시스템은 에이스침대가 창업 이후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하는 원동력이라 평가가 나온다.

**2세 기업 점주 프로그램 운영**  
1·2세 운영 매장 47곳 달해  
전체 대리점 매출의 15% 차지  
30년 업계 1위 지키는 '원동력'

**안성호 사장도 2세 경영인**  
대리점과 상생 경영철학 고수  
거점 지역에 대형 매장 조성  
싸게 임대해 점주 경쟁력 지원

◆장수 대리점 경쟁력  
침대는 오프라인 매장 판매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상품이다. 수면과 건강의 관계가 밀접한 데다 한 번 사면 10년 가까이 쓰는 제품인 만큼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많아서다. 에이스침대는 '침대는 직접 누워봐야 안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일선 대리점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사-대리점 간 상생 경영 추구  
에이스침대는 직접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거나, 도심 내 기존 건물을 매입해 조성한 에이스스퀘어를 대리점주에게 임대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대폭 저렴하게 책정해 대리점주의 비용 부담을 확 낮췄다.

259개 중 2세 대리점주가 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23개다. 창업주와 2세가 함께 운영하는 곳까지 합치면 2대 운영 대리점은 47개에 달한다.

2대 운영 대리점은 에이스침대의 핵심 오프라인 판매처로 자리매김했다. 2세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대리점 비중은 9%(23개) 수준이지만 매출은 전체 대리점 매출의 약 15%를 차지한다. 2대 경영 대리점의 평균 운영 기간은 22년으로 일반 대리점(12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길다.

안 사장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이 에이스침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의 효과적인 기업승계 지원은 물론 경영주들이 성공적으로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에이스 퓨처스 클럽'은 이 회사의 2세 대리점주 양

성 프로그램이다. 침대 제품 관련 지식은 물론 우수 매장 경영 사례 및 판매, 고객 응대 방법 등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세무·회계와 인사·노무 교육 강좌 등을 제공하면서 2세 대리점주의 전문성 강화를 돕고 있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 고객 피부 데이터 입력하면 자동으로 화장품 제조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릴리커버 '발란스'**  
전용기에 특정 피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에 걸맞은 스킨케어 화장품 제조가 시작된다. 제품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2~3분. 그렇게 나온 화장품은 2주 분량으로 포장돼 정기구독 고객에게 배송된다.

릴리커버를 세운 안선희 대표는 LG전자 출신 개발자다. 2006년부터 10년간 경북대병원에서 화상치료용 의료기기 개발을 했다. 화장품기업 창업을 생각한 것은 이때였다. 안 대표는 "화상치료 환자를 많이 접하며 피부가 자신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알았다"며 "효율적으로 개개인의 피부를 진단해 맞춤형 화장품 제조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2016년 12월 릴리커버를 설립한 후 4년2개월에 걸쳐 지금의 사업모델을 완성했다. 주축은 '소형 화장품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니마이다. 키오스크 형태의 패널에 특정 인 피부 정보를 입력하면 기기 내부에서 로봇이 알아서 적합한 제품을 생산한다. 안 대표는 "총 2만5000가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화장품'을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장품은 발란스의 상표를 붙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가격은 2주간 쓸 수 있는 15ml 분량 1·2만 3000원이다. 대부분 고객이 정기구독을 하기 때문에 2주 단위로 꾸준히 새로운 배송을 한다.

출시한 지 만년 만에 고객 1500명을 확보한 뷰티테크(기술+뷰티)기업 릴리커버의 대표 제품 '발란스(BalanX)' 제작 과정이다. 릴리커버는 발란스와 피부 측정기기 '몰리', 독자 개발한 화장품 제조기기(에니마-사진)를 통해 올해 연 매출 15억원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고객의 피부 데이터는 전용 측정기기 몰리나 전용 앱 '당부(당신의 피부)'에서 얻는다. 몰리를 구입하거나 대해해 자신의 피부에 대한 뒤 나온 정보를 제출하거나 당부에 접속해 해당 앱 카메라로 자신



의 피부를 찍어 저장하면 된다. 주요 소비자는 30대 여성이다. 안 대표는 "기존 화장품을 주문하면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를 받지만, 우리 화장품을 주문하면 갓 생산한 새 제품을 받는다"며 "2주 단위로 변화한 피부 타입에 따라 달라진 제품을 받을 수 있어 피부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의 반응이 좋다"고 했다.

릴리커버는 최근 다양한 해외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화장품 제조기기 에니마였다. 최근 중국에서 같은 제품을 제작해 달라며 주문을 받았고, 니베아-존슨앤드존슨과는 이와 관련한 스킨케어 솔루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에니마는 코로나19 확산 시대에 걸맞은 최적의 비대면 뷰티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안선희/대표

## 20대 여성 피부 유익균으로 항노화 화장품 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이젠 바르세요 (인체 내 미생물)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던 마이크로바이옴(인체 내 미생물)이 화장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코스맥스에 이어 한국콜마도 인체에 있는 유익균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나섰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사도 바르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콜마	피부 유익균 엑소좀으로 화장품 개발 추진
코스맥스	2019년 4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소재 개발 성공
잇츠한솔	지난 2월 피부용 유산균 종균 특허 출원
지놈엔컴퍼니	지난 1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출시
비피도	주름 개선 및 아토피 피부용 화장품 개발 중

자료: 각사

한국콜마는 GFC생명과학, 경희대와 프로바이오틱스(인체 유익균)에서 유래한 엑소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유익균에서 나오는 분비물인 엑소좀을 이용해 항노화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고 프랑스 람프미가 2019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출시하면서 화장품 시장이 본격 형성됐다.

### 한국콜마, GFC생명과학 제휴 코스맥스, 제품 상용화 나서

을 개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장품 개발에 적용할 유익균은 20대 여성의 피부에서 분리해 얻은 것"이라며 "피부 유익균인 락토비실루스 프란티스루미 50대 여성 대비 20대 여성에게서 두 배 이상 많이 발견되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코스맥스가 2019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여성의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유익균이 피부 노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유익균의 분비물로 화장품 소재를 만들었다. 이 소재는 미국 에스티로더에 인수된 헤브앤비의 화장품으로 상용화됐다.

한국콜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차세대 화장품 기술로 낙점했다. 지난해 6월 고바이옴, 지난해 7월 MD헬스케어와 잇따라 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졌다. 유익균에서 엑소좀 생산 수율을 높이는 원천기술도 확보했다. 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 위주로 개발됐다. 먹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장내 미생물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2018년 영국 유니레버가 마이크로

바이오 화장품 개발사인 프랑스 갈리니를 인수하고 프랑스 람프미가 2019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출시하면서 화장품 시장이 본격 형성됐다. 국내에선 코스맥스가 2019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여성의 피부에 많이 존재하는 유익균이 피부 노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유익균의 분비물로 화장품 소재를 만들었다. 이 소재는 미국 에스티로더에 인수된 헤브앤비의 화장품으로 상용화됐다.

한국콜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차세대 화장품 기술로 낙점했다. 지난해 6월 고바이옴, 지난해 7월 MD헬스케어와 잇따라 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기반을 다졌다. 유익균에서 엑소좀 생산 수율을 높이는 원천기술도 확보했다. 그간 마이크로바이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 위주로 개발됐다. 먹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장내 미생물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2018년 영국 유니레버가 마이크로

치료제 개발사들도 화장품 개발을 하고 있다. 지놈엔컴퍼니는 지난 1월 마이크로바이옴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 브랜드 '유익'을 출시했다. 가루 형태인 피우더에서 액체로 된 토너, 세럼 등으로 제품군을 늘리고 있다. 비피도는 주름 개선과 아토피 피부용 화장품 개발하고 있다. 고바이옴은 화장품은 아니지만 바르는 형태 여성정결제인 '이너위시'를 지난해 3분기 시장에 내놨다. 고바이옴 관계자는 "치료제와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 화장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 메타버스로 '주니어보드' 회의 소진공,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올해 첫 '주니어보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만 39세-근무 기간 5년 이하 소진공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다. 상향식 의견 제시와 수평적 소통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 마련됐다.

### 약효 오래가는 주사제 만든다 삼양홀딩스-지투지바이오 제휴

삼양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서방형 주사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방형 주사제는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게 해 약효 지속 시간을 최대 수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주사제다.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매일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주니어보드 회의는 가상공간의 개인 아바타를 통한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니어보드 단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의장을 선출하고 소진공 내 역량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차세대 관리자인 젊은 직원들의 자유로운 조직 진단과 의견 교류는 공단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삼양홀딩스가 의약품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하면 지투지바이오가 이 물질을 초소형 임자로 만들어서 서방형 주사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생분해성 고분자는 혈액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속에 담고 있던 약물을 방출한다. 지투지바이오는 10-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소형 임자를 일정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인 '노랩프'를 보유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구미국가공단 50년의 노하우,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 구미국가5산업단지

절찬  
분양중!

투자문의 054)480-6131

완벽한 폐수처리시설
안정된 전력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용수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예정